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두려워해야 할 유일하신 분

(마 10:24-33)

기독교의 신앙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있습니다.

### 1.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24절).

높임만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의 제자이며 종인 우리들이 고난 받는 것은 전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2. 고난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 보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26절)고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29절).

### 3.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28절).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목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은 물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나 영광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불의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Only One Whom We Must be Afraid of

(Matt. 10:24-33)

In the Christian faith, there is not only glory but also sufferings.

### 1. It is no wonder that you received sufferings because of Jesus.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v. 24).

Since Jesus underwent sufferings, we really deserve to receive sufferings. If Jesus who is our teacher and master undergo sufferings, we who are his student and servant should never complain about our suffering.

### 2. Don't be afraid of those who give us sufferings

Jesus worried about the suffering that his disciples received. The greatest fundamental matter of life is the fear hidden in the depth. As long as we are afraid of some problem, we cannot win. Because the fear makes our wisdom and power incapacitate.

The truth elicits the victory.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v. 26). This scripture means that we should not be afraid of the world. We also are not afraid of anything because God knows our entire situation and supervises (v. 29).

### 3. The only one whom we should be afraid of is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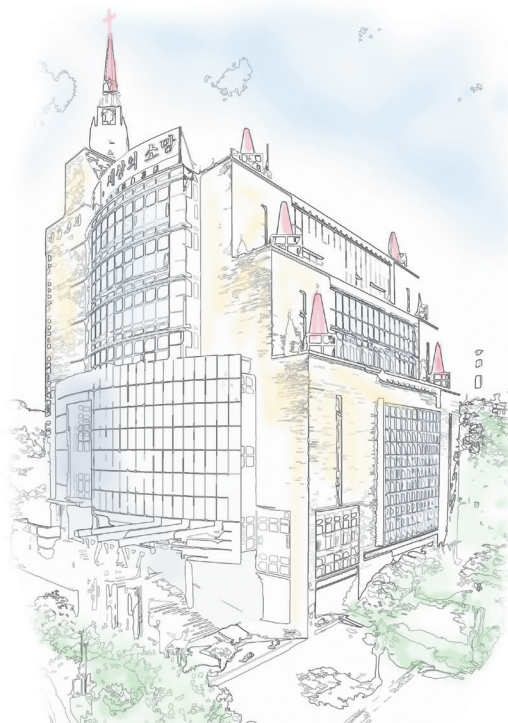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ed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v. 28).

The thing that threatens us in the world is only just our life. But God can destroy our body and soul. That's why we must be afraid of the creator God, eternal God, and judge God who are only one. If you are afraid of the world, you are a coward. However, if you are afraid of God, you are a wise man. The Bible says, "The fact that you are afraid of God and respect God is just the root of wisdom, the start of wisdom, and all of wisdom."

My beloved Christians,

It is inevitable that pleasure and glory happen together with suffering. Jesus who is our teacher, master underwent sufferings; it is illogical that we think we can escape from sufferings.

I hope you will not be afraid of your sufferings. All injustices that harass us will be exposed and the truth will win the victory at the end. By having a victory in the midst of full pleasure, desire, grace,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 2014년도 섬김위원 임명

- 오늘, 주일 I·II·III부 예배 시간에 -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등

지난 주 2014년도 남녀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 협동권사, 은퇴협동집사, 은퇴협동권사, 교구일꾼 임명에 이어 오늘은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된 2014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

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4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4년도 섬김위원들은 2014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3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 2014 새해에 바뀌는 것들

- 교회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송구영신예배(2013년 12월 31일, 화)를 23:20에 시작한다.
- 청지기 수련회는 1월 중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다.
- 추수감사절과 성찬식(11월 16일), 교회설립주일과 임직식(11월 23일)을 나누어 지킨다.
- 2014년 성탄절 교육부서 주관 특별행사는 주일찬양예배 시(12월 21일)에 갖고, 성탄전야예배는 12월 24일에 드린다.
- 2014년 첫 송영은 2장으로 한다.
- 교육5국에서 교육4국으로 변경된다. (교육2국 : 중등부, 고등부, 청년1·2부 / 교육3국 : 영어예배부, 디아스포라부, 사랑부, 예배다부 / 교육4국 : 장년부, 소망부, 소요리문답부, 신앙강좌부)
- 청년2부와 청년3부를 통합한다.
- 신앙강좌 1부와 2부를 통합한다.
- 신혼가정부는 청년 2부 소속으로 한다.

- 유년부, 초등부 연합 어린이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신설한다.
- 수능생을 위한 학부모 토요기도회(10월 8일~11월 8일)를 신설한다.
- 장한어머니상(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교회학교 자녀 1년 개근) 시상을 12월에 한다.
- 소요리문답부는 주일 1부 예배 후 801호(만나홀)에서 한다.
- 새가족위원회를 신설하고, 새가족관련 사역을 총괄한다.
- 새가족부에서 원입반 8주 과정(1부 예배 후), 전입반 4주 과정(2부 예배 후)를 운영한다.
- 총회 헌법에따라 학습, 세례식을 세례식으로 변경한다.
- 전교인 체육대회(5월 6일, 잠실학생체육관)를 갖는다.
- 사명자대회 기간 중 VIP초대 새생명축제는 10월 24일(금)~10월 26일(주일)에 한다.
- 헌신예배에 교구섬김위원 헌신예배를 추가한다.
- 무임자로 호칭을 협력장로로 변경한다.
- 도서실은 12월 말로 폐실하고, 지역사회를 더 넓게 섬길 수 있는 사역을 검토한다.

## 2014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에서

201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과 8층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

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4년을 섬길 일꾼들

지난 주 우리교회는 2014년을 이끌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테반회 회장으로는 최차순 집사, 부회장 홍일성 집사, 차도훈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제1권사회 회장으로는 김일순 권사, 부회장은 김신영1 권사, 제2권사회는 회장 고정숙 권사, 부

회장 주경자 권사를, 살롬권사회는 회장 김연옥 권사, 부회장 이순례 권사를 임명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앞에서 총성된 종으로 봉사하기 바란다.



최차순 집사 (스테반회 회장)



김일순 권사 (제1권사회 회장)



고정숙 권사 (제2권사회 회장)



김연옥 권사 (살롬권사회 회장)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3)

(문 112)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사가 역사적 정확성이 있습니까? 가령 왕하17의 애굽 왕 소나 대하 14:9의 구스 사람 세라 같은 이들의 이름이 세속사에서는 기록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 가장 평이한 대답으로는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세속사에 기록된 역사와는 다른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떠난 역사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명이나 지명이 세속사에서 찾아지지 않는다고 성경의 역사성이 무시되거나 도외시 될 수는 없습니다. 세라나 소라는 사람의 이름이 세속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할만한 의미 있는 업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사에서는 크게 부각된 인물이나 지명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1,850년까지만 해도 많은 고고학자들은 헷 사람들이나 앗수르의 사르곤2세의 Horites와 바벨론의 벨사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것들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하17:4에 언급된 소(so)왕은 사마리아의 호세아와 동맹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그는(호세아) 사이즈(sais)-그당시 애굽의 수도-로, 애굽 왕에게로 사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Tefnakht(약730-720)로 그는 sais에 그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K.A.Kitchen이 J.D Douglas가 편집한 New Bible Dictionary(1962)에서 소(so)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구스)의 세라의 이름도 성경(대하 14:9-15)외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유다의 아사왕(910-869)때에 애굽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통치자중 그 기간 동안 그런 사람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과 구스를 같이 통치한 제22왕조의 시삭(12:2)의 후계자인 오소르곤 2세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음 주 계속)



# 교회의 부름 받아 달려 온 한 해



김광형 집사  
(전 스테반회 회장)

1, 2스테반회가 하나로 합쳐지고 교회의 기대와 부담을 안은 채 스테반회 회장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열성을 다하고자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스테반 회원의 단합, 협력과 봉사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별로 해 놓은 일이 없이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일까, 바쁜 생활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시간부족일까요 아니면 사명감 부족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 기도의 부족과 리더십 부족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서울교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스테반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회장단과 임원진을 돕는 일도 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스테반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매우 소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참여하고 일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자고 시작했는데 이제 진정으로 스테반회가 서울교회의 300용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동참하며 협력하고 헌신하는 스테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교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스테반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회장단과 임원진을 돕는 일도 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이며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스테반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매우 소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참여하고 일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자고 시작했는데 이제 진정으로 스테반회가 서울교회의 300용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동참하며 협력하고 헌신하는 스테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적극 도와 주신 임·역원들과 동참하고 협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적극 도와 주신 임·역원들과 동참하고 협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옥 권사  
(전 제2권사회 회장)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도 또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지난 일 년 동안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달려 나와 함께 힘을 모았던 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연초에 담임목사님과 함께 했던 노약자 심방 때, 하나님과 교회의 돌봄과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지를 느꼈습니다. 포항과 철원, 삼척 등의 진중 세례식과 성찬식에 갈 때마다 먼 곳부터 새벽에 달려 나와 함께 해주셨던 사랑하는 선배 회장님들은 제게 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대구, 광주, 여수 등 때를 불문하고 있었던 원로(禔路) 문상길을 손수 운전으로 인도하시던 교구 목사님들의 사랑과 노고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1시 101호, 월례회 단상에 설 때 마다 느꼈던 중압감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 즐거웁습니다. 그 때마다 제 앞에서 편안히 앉아 교제하던 회원들이 참 부러웠는데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기쁩니다. 이전 보다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셨던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차기 권사회임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허숙 권사  
(전 제1권사회 회장)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자가 말씀하셨던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도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피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한없이 게으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올 한 해 섬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제1권사회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모양 저모양으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봄 가을 열리는 20주간의 목회세세미나와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의 새생명축제, 그리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권사회원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회원들이 여러분 계셔서 늘 마음 한 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권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14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일꾼들이 정지선에 서었습니다. 부디 우리 권사회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눈물의 기도로 수고의 땀으로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 증인의 삶을 목회 비전으로

지난 12월 1일 부임하여 내년에 4,5,6,7교구와 찬양위원회, 설교사역도교부, 사랑부, 금요기도회를 담당하게 될 박영준 목사님은 1976년생으로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을 졸업하고(M. Div.),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Th. M. 목회상담학 전공) 하였다.

박영준 목사님은 선교단체 CCC에서 훈련을 받고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슴 떨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러질 수 있도록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저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자신의 은사로는 집회인도와 찬양인도, 찬양팀 훈련 등이라고 말하고, 한편으론 교육과 상담분야, 제자훈련 등을 자신있는 분야로 꼽는다.

박영준 목사님은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가운데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선으로서 거친 물결을 헤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큰 뜻을 단 배와 같았다는 표현을 하며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산 제물이 되길 갈망하며 깊은 감격에 젖었노라고 했다.

박영준 목사님은 2014년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 설교, 행정, 심방, 교육등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가슴으로 동참하고 부지런히 심방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찬양으로 가슴벅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사랑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며 찬양위원회와 설교사역도교부도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했다.

박영준 목사님은 플룻을 전공한 이현순 사모와의 사이에 결혼 7년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5개월된 태아가 있다.

<편 집 부>



박영준 목사님과 이현순 사모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 선교의 미래는 군에 달려있다

"군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황금어장이고 선교의 미래는 군에 달려 있다." 한경직 목사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부대에 서울교회 군 선교팀이 방문하여 군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군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훈련병 신우와 부모님이 함께하여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하면서 군 선교의 비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군 선교의 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군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 생활 시작할 때는 군 교회가 생활관보다 시설도 깨끗하고 냉, 난방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 생활관의 현대화로 인해 생활관 환경이 군 교회보다 깨끗하고 냉, 난방이 더욱 잘되니 환경이 열악한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대교회의 열악한 환경의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군 선교를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열심히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이 군에 오면 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데 이 문제 또한 서울교회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군 입대 전 서울교회는 군 파송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송교육을 받은 훈련병은 자대에 가서도 군 교회에 와서도 군선교사의 자세로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군 입대를 앞 둔 청년을 해당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군 파송이라는 의미를 저들에게 부여해 준다면 군에 와서도 전우들을 전도하는 선교사적인 임무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교회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하면서 오래 전 군을 떠났지만 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서울교회 임직자들을 뵈을 때 아직 군대가 선교의 오지로 바뀌지는 않았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동해안 먼 길까지 직접 함께 동행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3사단 참모장 하영재 대령



비전2020 운동본부(부장:이갑진 장로)는 제23사단 진중세례식을 지난 11월 30일(토) 오후 2시에 거행하였다.

비전2020운동은 오는 2020년까지 군부대 장병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장병 22만 명 이상을 복음화 하여 이들을 일반 교회로 환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의 기반은 매년 우리 교회가 모집하는 'VISION 2020운동 후원'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한 구좌가 많은 국군장병들을 복음화하는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순례자 -

##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호산나찬양대(대장:김유경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서울교회 유일의 여성찬양대원만으로 구성된 찬양대로서 서희숙권사의 지휘로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은 땅아 주님께", "주는 나의 빛"의 세곡을 찬양드린다.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성도, 피아니스트 흥혜란 집사, 팀파니스트 허해민선생 그리고 플루트에 남선영 성도가 함께 연주한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삼일회장 취임감사예배 격려사를 한다. 12일(목) 한국군선교사역자 성탄감사예배 참여한다. 13일(금)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명저번역위원회,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집사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카포 크누아 합창단의 제1회 정기연주회를 12월 12일(목) 갖는다. 한예중 Knuu홀 오후 7시 30분

■ 작은 음악회 : 11교구 김양연 성도(김현영 집사,최현인 권사 자녀), 임혜원 성도(5교구 임병창 집사,이정애 집사 자녀)12월14일(토) 오후7시 콘서트 하우스(02-588-3130)

■ 주간식당봉사 : 스테반회 (12.8) 제1권사회 (12.15)  
■ 금주의 식사 : 이경수 집사 조영미 집사 가정  
김금준 집사 이현주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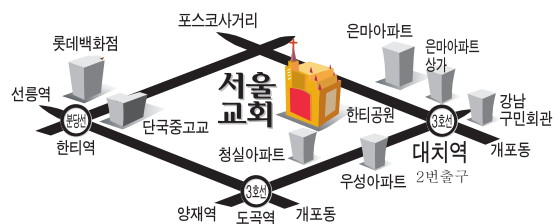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4년 섬김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모든 일꾼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2. 비전 2020 후원, 농어촌 100교회 후원, 1가정 1선교사 후원이 풍성하게 이뤄져 귀한 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3. 대립질을 맞아 아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되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